

임실 김장페스티벌 대박 예감

11일~12일 치즈테마파크일원서 개최 사전 신청자, 지난해 대비 두배 증가

임실군이 오는 11일 '제2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로 두 번째로 열리는 김장페스티벌은 지난해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두 배 이상의 사전 신청자가 몰리면서 축제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군은 다가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인근 도시민들과 지역민 등 2000여명 참여로 김장페스티벌의 막을 올린다.

올해 김장페스티벌은 사전신청 기간부터 참여회場자가 대거 몰리면서 당초 목표치인 2만kg을 훌쩍 넘어선 2만3000kg이 사전 접수된 상태다. 이는 지난해 1만1000kg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참여인원 역시

지난 해 1000여명에서 올해는 2000여명으로 급증했다. 군은 페스티벌이 열리는 당일에는 사전참여를 신청한 희망세대와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까지 몰려 축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달 31일까지 사전신청을 접수 받은 임실군은 축제 참가를 희망하는 사전접수 신청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추가물량을 확보하는 데 인건 힘을 쓰기도 했다.

올해 페스티벌의 인기는 지난해 도내에서 처음 개최해 큰 성과를 이룬 제1회 김장 페스티벌의 입소문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은 그동안 김장페스티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절임배추 작목반등 농가를 대상으로 김치 명인을 초빙, 일괄적인 배추 절임방법에 대한 교육 등 만족도 높은 축제 만들기에 남다른 공을 들여왔다.

김장페스티벌은 임실엔양념식품육성사업 일환으로 지역농가가 직접 재배한 고춧가루와 절임배추, 무, 생강, 양파 등 농산물을 사용한다.

특히 올해 김장페스티벌은 즐길거리와 먹거리 등도 풍성하다. 노래자랑과 퀴즈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축제 열기를 더하고 앞치마와 고무장갑, 두건, 수욕 등을 제공하는 등 즐거움에 편의성까지 제공한다.

심민 군수는 "작년에 처음 열린 김장페스티벌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는 신청물량도 참여인원도 두 배 이상 늘어나 물량확보 등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실=진총영 기자

남원시 살림누리기 총력전

이환주 시장 국회 방문 등 국가예산 확보 빨라진 행보

남원시가 20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환주 남원시장(사진)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안호영 국회의원을 만나고, 이어 주요사업 관련 상임위 의원실을 잇따라 방문하여 국가예산 확보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예산 심의 마지막 단계까지 힘을 모아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이 시장은 안호영 의원을 만나 친환경 전기열차 정책연구 용역 5억원과 천연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 사업 10억원 예산 반영에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천연 화장품원료 생산시설 구축 사업은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원물배배, 가공 중심의 지역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장품 원료 재배 공급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 외에도 남원시는 국회 예산 심의 단계 시 예산 반영을 위해 월라정수장 개량사업 6억원, 동부내륙권(정읍~남원) 국도 건설 20억원 신규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환주 시장은 "지역 현안사업들이 마지막 국회 심의 단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지역 정치권과 공조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

순창군 실내체육관이 시끌벅적하다. 최근 순창군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학교 돌봄교실과 함께 제3회 연합체육대회를 진행했다. 순창군에는 지역아동센터(순창, 풍산, 구립합사량)3개소가 있으며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8세미만 이용아동 67명이 현재 방과 후 돌봄으로 교육, 복지, 체험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이날 체육대회는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까"라는 선수대표 선서문처럼 아동의 부모님들과 지역아동센터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학교돌봄아동, 이웃분들의 참여로 200여명이 모여 힘껏 소리 지르고 뛰며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바쁘신 부모님들께서도 일손을 멈추시고 참여하셔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신 순창군 관계자분들로 지역아동센터는 큰 힘을 얻었다. 이은영 순창군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은 요즘 맞벌이 가정의 늘어나면서 아동들이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많아지는 만큼 가정의 역할을 대체해 주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시 농업인들이 절임배추를 생산하고 있다. 가격은 20kg 한 상자에 3만원에서 4만원까지 판매되고 있다.

겨울철 주민건강 챙기기 분주 임실군 맞춤형 이동건강검진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임실군이 주민건강 챙기기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군은 주민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건강검진을 오는 14일까지 6개면을 대상으로 하반기 2차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을 진행한다.

이번 건강검진은 임실읍을 시작으로 청송과 강진, 덕치, 운암, 신덕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검진대상은 2016년도 미수검자와 의료보험 지역 가입자 중 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와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사무직 근로자이며, 격년제로 진행한다.

1차 검진항목은 기초검사, 구강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이다. 1차 검진결과 의심자는 2차 검진을 실시하고, 당노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로 판정될 경우, 보건의료원에서 지속적인 관리 및 의뢰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이동건강검진과 함께 위암과 간암, 유방암, 대장암 등 국가 암 검진도 병행 추진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부와 협진으로 진행되는 이번 암 검진은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그 대상이다. 단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이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임실군 의료지원과(063-640-3325)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총영 기자

위독한 환자에 신속한 응급처치 생명구한 송명제 전문의 '화제'

폐기종환자 긴급이송조치 환자가족, 감사의 뜻 전해



고마워 한 걸로 알려지고 있다. 응급실 담당의사가 환자후송에 동승한 1시간 40분 동안의 진료는 관내 응급의료기관에 거주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공중보건과 송명제 전문의가 진료를 대신해 주며 응급실에 내원한 지역주민의 진료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이번 사건처럼 순창군보건의료원이 연간 1만여 명의 응급실 이용환자를 진료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으로써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지역 주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다. 특히 24시간 진료병원이 없는 순창에서 유일하게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순창군보건의료원은 관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유일한 곳이다. 군 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2012년 12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 전문의 4명과 간호사 7명이 상시 24시간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순창군보건의료원 응급실 송명제(사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발빠른 응급 조치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목숨을 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갖고 있는 전모씨(83세) 어르신이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로 숨이 심하게 가빠서 119 구급차 타고 보건 의료원 응급실 내원해 호흡기 치료 등의 응급처치 시행 후 증상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흉부방사선 촬영검사 결과 오른쪽 폐에 기흉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한 송명제 선생이 환자의 위급함을 인식하고 전북대 병원으로 긴급이송조치를 결정한 것. 특히 송명제 선생은 이송 도중 응급상황이 다시 발생 할 수도 있는 상태여서 차량에 동승해 산소공급 등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의 위급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

발빠른 대처로 자칫 위할 수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한 것. 환자의 자녀도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올 김장은 지리산이 키운 배추로"

남원 농업인, 절임배추 생산 돌입... 20kg에 3만원 판매

지리산의 넓은 품속에서 자란 남원시 농업인들의 절임배추 생산이 시작되었다. 절임배추는 생배추 다듬기, 소금물에 절이기, 씻기, 다듬기, 포장과정을 거쳐 주부들에게 판매된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관내 절임배추 판매량을 250으로 설명하며, 올해 날씨가 배추를 키우는데 적합해 맛이 아주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산 절임배추는 밤과 낮의 기온차가 매우 커 아삭거리는 맛이 우수하고, 김치로 담갔을 때 불러지지 않으며, 당도가 높아 감칠맛이 뛰어나다. 절임배추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생협에도 일부 납품하고 있으며, 농가별 두꺼운 총성과 객층을 확보하고 20kg(7~10포기) 한상자에 3만원에서 4만원까지 판매되고 있다. 농가별 가격차이는 유기농과, 저농약의 차이이며 품질은 동일하다. 주요생산농가는 지리산치즈집, 지리산장터목, 바울농산, 산아래누룽지, 달오름마을이며 연락처는 각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